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사업 본격 추진

전북지역 국회의원·지자체·전문가 등 참여 '민관협의회' 출범
개발 방식·수산업과 공존방안·수익모델 등 논의 연말께 결정

부안·고창 해상에서 추진하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사업을 논의할 민관협의회가 출범했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국회, 지자체, 산업부, 지역·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에너지 전문기관, 수산업·풍력 전문가 등은 23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구축 민관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의회는 개발 방식,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방안, 주민 참여 및 수익 모델 개발 등을 논의해 연말께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은 전북 부안·고창 해상에 국비와 민자 등 총 12조원을 들여 2460MW(원전 2.5기 규모)를 생산하는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사업계획은 올해 1단계 60MW 실증단지 구축, 2단계 400MW 시범단지, 3단계 2000MW 생산단지를 추진한다는구상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62억kWh (2조 3000억원 상당)이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는 149만 가구가 1년간 쓰는 규모다.

여기에 풍력 기업과 연구소가 유치되어 일대가 해상풍력 사업 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발전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 주민과 마찰을 빚으면서 더디게 진행됐다.

이번에 출범한 민관협의회는 이같은 점을 감안, '해상풍력 구축과 상생'을 목표로 주민 토론 및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민관협의회 측은 "정부 주도로 추진된 실증단지 사업 과정에서 고창·부안 주민과 소통 부재 등으로 반대가 많았다"며 "협의회가 주민 협의와 소통을 추진하면서 정책 추진 및 도민 이익을 대변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위원장은 "새만금과 서남권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전북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해상풍력과 주민이 상생하면서 주민이 이득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방사선 분야 메카로 거듭나나

유진섭 시장,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상생 발전 방안 논의

정읍시가 방사선 분야 메카로 거듭날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4일 정읍시에 따르면 유진섭 정읍시장은 최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찾아 상생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정읍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의 연구 역량을 활용해 지역 발전으로 이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이들 기관을 찾아 방사선기기 산업 등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공동 보조를 취하고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축산액비 악취저감 기술개발 등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정읍의 동물의약품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동식물과 의약 바이오신소재 개발 평가지원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정읍 신정동 연구단지는 지난 2015년 7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만큼 연구개발기능의 강화를 통해 관련 기술이 기업체로 이전,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진행중인 여름방학 특별체험전시 브릭사이언스 파크가 인기다. 전시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블록들을 만지며 체험하고 있다. 〈군산시 제공〉

순창군 옥천인재숙 '열린강좌'
여름방학 중학생 대상 개최

순창군 옥천인재숙이 지역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열린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다음달 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매일 2시간씩 진행된다.

강의는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고 학년별로 2개반씩 나눠 진행한다.

옥천인재숙은 그동안 중 3~고 3년까지 학년별로 50명씩 200여명을 선발, 방과후 국·영·수 정규과목 강의를 진행중이며 지난해부터는 여름방학 기간 중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열린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열린 강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남원제일고, 국방부 軍 특성화고 최종 선정

남원제일고가 국방부의 군(軍) 특성화고로 최종 선정됐다.

내년부터 남원제일고 조리제빵과에 입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군 특기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이후 관련 분야 부사관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군 특성화고 학생들은 국방부가 지정한 전국 23개 특성화 고교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뒤 졸업과 동시에 입대, 전문병(18개월), 전문하사(18개월)로 복무하게 된다. 이후 개인 희망에 따라 국방부와 MOU를 체결한 기업 등에 취업하거나 전문기술부사관으로 근무할 수 있다.

학생들은 고교 과정에서 취업·병역 문제를 해결하며 대학 진학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남원제일고 관계자는 "학생들이 병역, 취업, 진로 진학의 꿈을 확실히 설계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군산예술의 전당, 여름방학 특별체험전시
'브릭사이언스 파크' 관람객 2000명 돌파

군산예술의전당이 마련한 여름방학 특별체험전시 브릭사이언스 파크가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브릭(Brick)'을 테마로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블록들로 12개의 존을 구성,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해 2000명이 넘는 유료 관람객이 찾았다는 게 예술의전당측 설명이다.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듀플로존, 빅브릭 플레이존과 초등생들이 좋아하는 브릭 플레이스테이션, 마인크래프트등 연령에 맞게 공간을 분리한 점도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군산 선유도해수욕장
피서객 프로그램 눈길

군산시가 선유도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선유도를 찾은 피서객들을 위한 썸머 페스티벌과 한여름 밤의 영화제, VR(가상현실)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썸머 페스티벌은 27일 선유도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밸리댄스, 직장인 밴드 공연,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화려한 불꽃놀이 등도 마련된다.

영화제는 매주 토요일에 열리며 '소중한 날의 꿈', '살인자의 기억법' 등을 무료 상영한다. VR 체험은 선유도해수욕장 탐방지원센터에서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할 수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군산시, 4대 어촌개발권역 특화 '수산업 발전계획' 내놨다

군산이 도심어촌·고군산·북부섬·새만금권 등 4대 어촌개발권역으로 특화한 수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또 수산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23개 핵심과제의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열린 '수산업·어촌 및 식품산업 혁신발전 2030 계획' 최종보고회를 통해 지역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군산시는 우선, 해양수산부의 '수산혁신 2030' 계획과 연계, 지역 특성에 맞는 융·복합의 6대 핵심전략을 마련하고 8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시는 이 지리에서 '바다의 힘! 다함께 잘사는 자립 어촌 실현' 이라는 비전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 수산업이 전통·현실안주형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 실천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지역수산업의 혁신발전을 위해 23개 핵심과제를 발굴, 국가예산 확보 및 신규사업 공모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익산지역 환경문제 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 출범

익산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환경문제 해결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가 공식 출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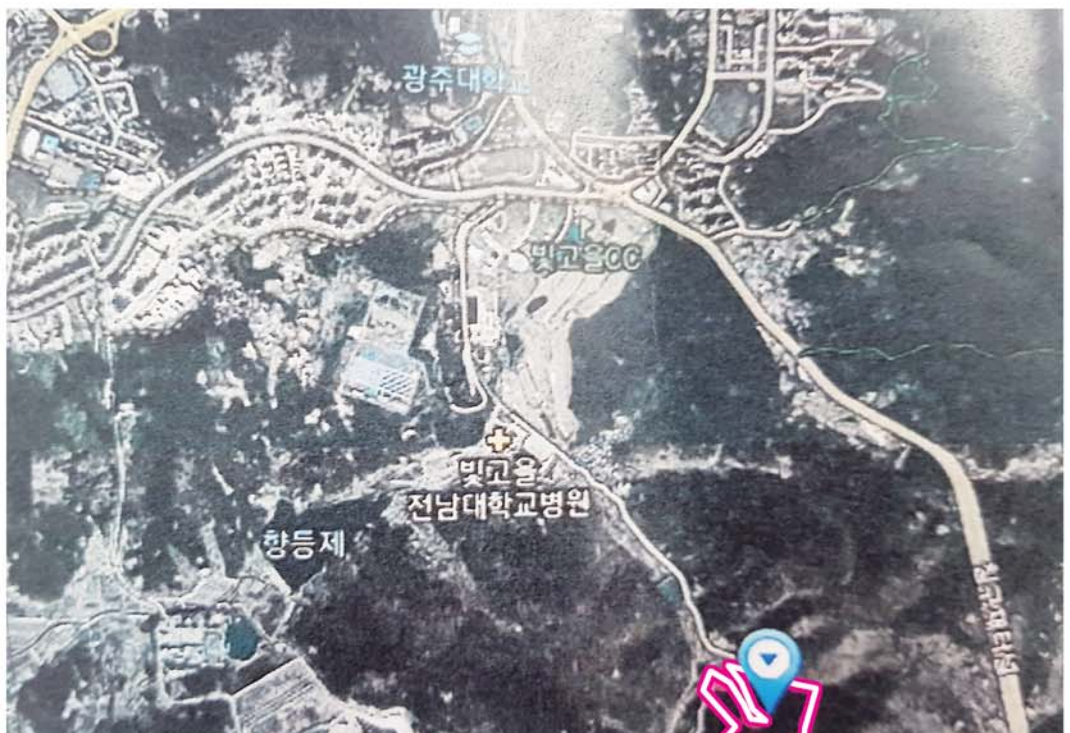
이들은 지난 23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에서는 장점마을 집단암 발병, 낭산 폐석산의 불법 폐기물 매립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다"며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환경과 시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시에 대해 "잘못된 관행과 안이한 대처로 시민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환경문제의 원인 규명과 사태 해결,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시장 직속의 시민환경위원회 설치, 환경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환경교육 의무화 등을 주문했다.

공동대책위에는 익산지역 농민회, 민주노총, 전교조, 환경운동연합, 정의당 등이 참여했다.

/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덕남동, 임야 급매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3.3㎡당 15만원)**
문의. 010-6834-7400